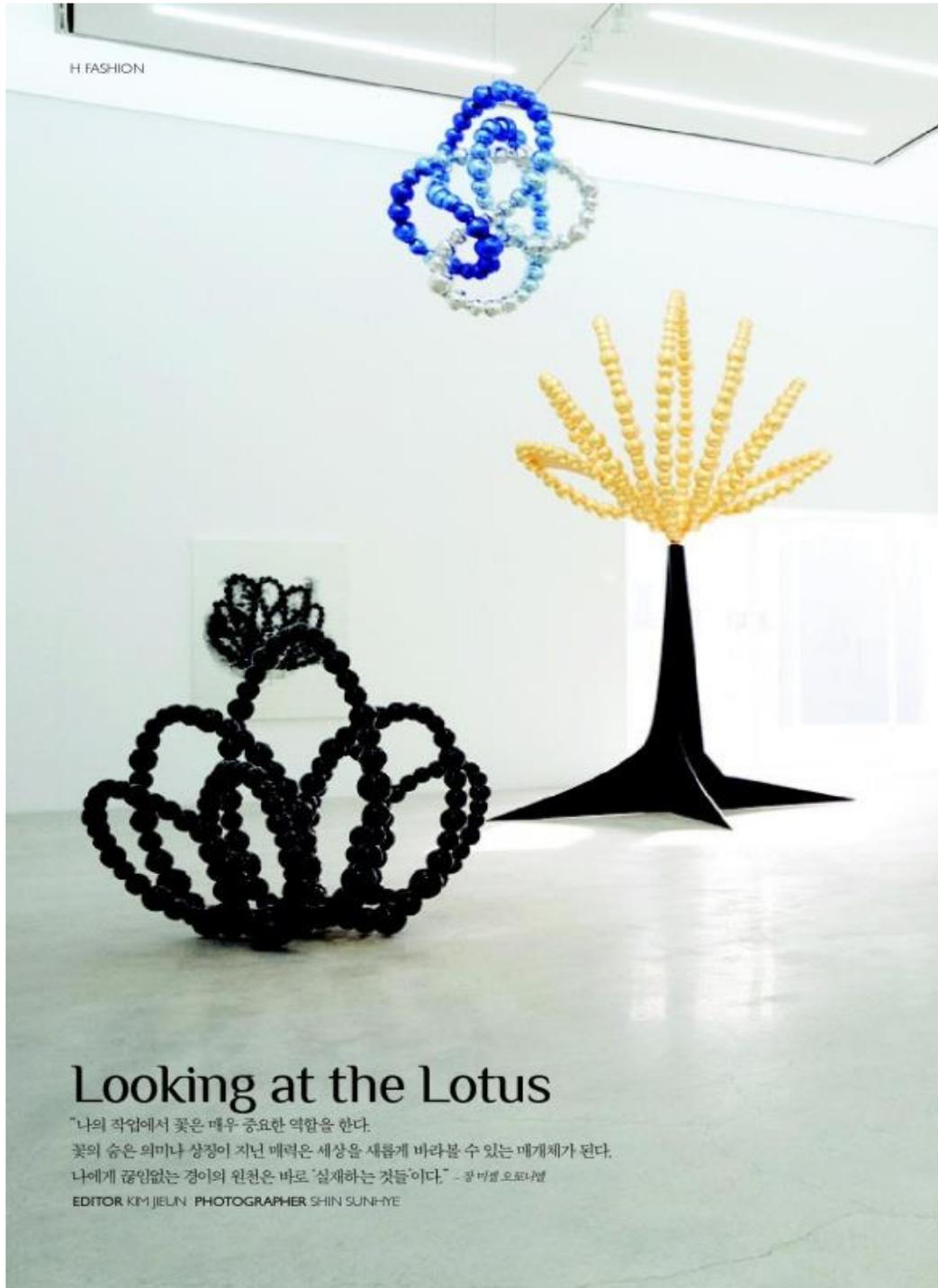


## Looking at the Lotus

February, 2016 | 김지은 기자

page 1 of 10





추상화 느낌의 스웨트셔츠와 주름 잡힌 스커트,  
플렉스 밴드, 실버 바이퍼 글러브 모두 사넬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원피스 생 로랑

**"Purple Lotus"**, 2015, 130X120X120cm  
장 미셸 오노리예의 작품 세계에서 본질 탐구에 중요한 촉매제가 되는 듯,  
그중에서도 언뜻에서 받은 영감을  
그의 대표적인 유리 조각 설치 작품으로 구현했다.



**'Black Lotus', 2015, 150X150X150cm**  
이런 전시의 대표 작품으로,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상징주의 시인 랭보의 '보이지 않는 찬란함' 등에서 영감을 받아 모순현 단어 조합의 가치를 표현한 설치 작품, 그 뒤 띄어는 감각을 입힌 캔버스에 색안화 잉크로 채색한 평면 작품을 겹쳐 한 공간에서 오버랩되는 듯 극적인 느낌을 부여했다.







'Blue Knot', 2014, 72X63X43cm  
김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지크 라캉의  
'매듭 이론'에서 착안한 작품으로 실재계, 상상계,  
심상계를 상징하는 3개의 매듭을 형상화했다.



'Gold Lotus', 2015, 360X230X180cm  
검은 반쯤 삼킨의 황금빛 꽃 형상 유리 조각을  
바람에 따라 회전할 수 있게 고안.  
자연현상도 작품의 일부이자 동력이 될 수 있음을 표현했다.

컬러풀한 구성주의 패턴의 폴리츠들과  
스커트 폴리츠폴리츠,  
도트 프린트 로트백 MCM.



강렬한 레드 & 블랙 스트라이프 아우터 디올,  
폼폼 장이 캄프스 치마쿠,  
이러적인 느낌의 레드 예탈 신글리스 사넬





꽃 모티프 쿠빅로 오자 신자,  
다양한 소재와 재질을 비대칭적으로 배치한 원자스  
**분체가 배제다.** 꽃 모티프를 더한 미니믹 밴드.  
꽃인 디테일의 스트랩 산들 질 **스튜디오 와이츠먼**  
**"Pink Lotus"**, 2015, 120X120X120cm  
'분우 노르'의 실제 공중에 설치한 예술 작품으로  
유리에 반사되는 빛을 통해  
관상적인 느낌을 연출. 보다 관념적이고  
입체적인 관람을 가능하게 한다.

(장 미셸 오노리에 개인전, 김환관출)  
정확한 건축을 작품에 표현하는 현대미술가 장 미셸 오노리에의  
전시다 국제갤러리 32에서 진행이다.  
유리 조각 설치 작품과 회화 작품, 총 10점의 신작은  
보다 새롭고 추상적인 모습으로 커다다 다차원적인 예술 세계를 그려낸다.  
전시는 7월 27일까지.  
해어 스타일리스트 윤성호 | 헤어디자이너 이희수 | 스타일리스트 김현심  
세로 스타일리스트 박주영(레이빙) | 호텔 컨셉션  
아이스크림 이윤성 | 촬영 팀즈 국제갤러리